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시 50+캠퍼스·센터
음악커뮤니티 현황 및 만족도 조사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의 영

서울시 50+캠퍼스·센터
음악커뮤니티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 전공

김 의 영

인 준 서

김의영의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특정 연령대를 위한 시설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시 50+ 캠퍼스·센터의 50+세대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음악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더불어 50+음악커뮤니티에서의 음악활동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50+음악커뮤니티 참여동기에 대한 다중응답과 참여자들의 음악활동을 교차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서울시 50+캠퍼스와 4개의 50+센터 중 50+음악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은 곳은 1곳이었고 3개의 캠퍼스에는 9개의 커뮤니티가, 4개의 센터에는 22개의 커뮤니티가 조사되어 개수는 총 31개이다.

둘째,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인 ‘삶의 질’과 ‘여가만족도’가 높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셋째, 직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전문·관리직”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집단은 “서비스직”이었다.

넷째,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음악활동(활동기간, 참여빈도, 연습시간)은 모두 ‘여가만족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활동기간 “2-3년”집단이 가장 높았고 참여빈도와 연습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50+음악커뮤니티 활동기간에 따른 활동동기는 집단마다 달랐으며 연습시간에 따른 목표동기 또한 모든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평균점수가 대부분 4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50+음악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여가만족도, 삶의 질)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50+세대에게 필요한 음악의 역할과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서울시 50+캠퍼스·센터”에 대한 이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정책운영의 현장 자료로써, 미래의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음악교육의 기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4. 선행연구 고찰	3
II. 이론적 배경	7
1. 서울시 50+캠퍼스·센터	7
2. 50+음악커뮤니티	21
3. 삶의 만족도	25
III. 연구방법	32
1. 연구대상	32
2. 연구절차	32
3. 연구도구	34
4. 자료처리	43

IV. 연구결과 분석	45
1. 서울시 50+ 캠퍼스·센터별 음악커뮤니티 현황분석	45
2. 서울시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	48
3. 50+음악커뮤니티 활동이 참여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에 대한 분석	51
4. 서울시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참여 동기 빈도분석	59
5.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커뮤니티 참여동기와 음악활동 간 연관성 분석	61
 V. 논의 및 결론	 6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1 <설문지>	

표 목 차

<표 1> 과거의 연령분류와 UN의 연령분류 비교표	12
<표 2> 50+재단의 사업 분류	16
<표 3> Houle의 참여동기 분류표	25
<표 4> 성공적 노화 요인 분류표	28
<표 5> 여가만족척도 하위요인과 조작적 정의	30
<표 6> 연구대상의 커뮤니티 참여자 인원수	33
<표 7> 연구절차	33
<표 8> 설문지 문항분류표	35
<표 9> 참여동기 문항에 대한 다중응답 선택지	37
<표 10> 요인별 신뢰도분석	40
<표 11> 삶의 만족도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분석	42
<표 12> 통계용어정리	44
<표 13> 서울시 50+캠퍼스별 음악커뮤니티 현황분석	46
<표 14> 서울시 50+센터별 음악커뮤니티 현황분석	47
<표 1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49
<표 16>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51

<표 17>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	52
<표 18> 연령대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	53
<표 19> 직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54
<표 20> 활동기간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	56
<표 21> 참여빈도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	57
<표 22> 연습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차이	59
<표 23> 연구 대상자의 참여 동기에 대한 빈도분석	60
<표 24> 활동기간과 활동동기 간 교차분석	62
<표 25> 참여빈도와 학습동기 간 교차분석	64
<표 26> 연습시간과 목표동기 간 교차분석	66

그림 목 차

[그림 1] 50+재단·캠퍼스·센터의 구성	12
[그림 2] 50+심볼에 담긴 50+재단의 핵심가치	14
[그림 3]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 지역별 지도	18
[그림 4] 지역별 특화 권역별퍼스	2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시발점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어 노년기로 진입하는데 이들은 70만 명 이상이다.¹⁾ “베이비부머세대”의 마지막인 1963년생까지 모두 진입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8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22%이상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퇴직 이후 삶이 40-50년 이상 늘었으며 은퇴를 기점으로 인간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가 변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베이비부머세대”는 그들만의 문화와 감성을 가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에 의해 자아실현이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은퇴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참여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50+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확장시키는 하나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자 “인생 이모작 센터”와 “서울시 50+캠퍼스”가 등장하였고 더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지역구 중심의 “서울시 50+센터”도 생겨났다. 두 기관은 규모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진행사업은 비슷하다. “서울시 50+캠퍼스·센터”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질

1) 2019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2019년 03월 23일 접속]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적인 이용대상은 45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들이며, 10-30대의 시설이용은 지양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복지센터와 다른 점이다.

“50+캠퍼스·센터”는 은퇴 이후의 인생 2막을 위한 인생설계·상담과 다양한 장르의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에서 배운 것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50+커뮤니티 운영을 돕는 플랫폼이다. 음악교육을 다양한 교육 분야 중 하나로 보고 ‘50+세대’에게 악기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강의와 시설을 제공하며 50+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가정이나 직장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교류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개인연습을 통해 연주기술을 익히고 연주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은퇴 이후 무료해질 수 있었던 삶에 윤활제가 되어 참여자들의 ‘삶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50+”라는 단어가 상용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50+재단·캠퍼스 및 센터는 50+세대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마련된 시설이자 50+세대를 위한 놀이터모델의 선두주자이다.

이 연구는 50+캠퍼스·센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50+세대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50+캠퍼스·센터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50+음악커뮤니티의 현황을 조사하여 음악커뮤니티활동이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50+캠퍼스·센터별 음악커뮤니티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서울시 50+캠퍼스·센터 내 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50+음악커뮤니티활동이 참여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서울시 50+캠퍼스·센터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 50+ 캠퍼스·센터 내의 음악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설문지의 내용은 참여자 개인 신상, 50+음악커뮤니티 참여경로, 음악활동 관련사항, 참여 동기, 삶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50+음악커뮤니티활동이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사후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4. 선행연구 고찰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음악프로그램 만족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강지은²⁾의 연구결과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과 사업장부설센터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연구결과를 통해 사업장부설로 운영되는 시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평생교육시설과 다른 새로운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설문지에 주관식의 형태의 질문이 많아 다양한 답이 수집되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가장 많은 답변 순으로 정리한 부분은 아쉬웠다. 하지만 이 같은 실태연구가 계속된다면 성인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음악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강자를 대상으로 수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공미숙³⁾의 연구는 ‘만족도’를 단일요소로 보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설문지를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조사지역을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로 제한하였다는 점이 아쉬웠으나 부산을 조사지역으로 삼은 것은 이후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윤활제가 되었다.

노인학습자들의 음악적 성장을 목표로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도 배운 것을 다시 사회에 적용하여 함께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노인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진행한 박부경⁴⁾은 이제까지의 노인음악교육이 주로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교육 위주의 수업이었음을 지적했다. 노인의 음악교육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통해 배운 음악을 활용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50+커뮤니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영준⁵⁾은 자신의 연구에서 노년기에 마주하는 상실감에 대하여 노인이

-
- 2) 강지은(2009), 사업장부설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음악평생교육 만족도 비교 분석 : 서울 소재 기관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공미숙(2017), 부산지역 평생교육 음악프로그램 실태 및 수강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박부경(2018), 평생교육 적용을 위한 노인음악교육모델 개발 및 타당화,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이영준(2017),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적 요인과 여가활동 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요인 간 인과관계의 파악이 필요하고, 노인평생교육은 소극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고려한 적극적 교육으로 발전해야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재교육이나 취미생활을 활용한 사회봉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적극적인 형태의 평생교육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교육’을 주제로 하지만 재교육이나 사회공헌활동, 커뮤니티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은 50+캠퍼스·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의 측면에서 50+캠퍼스·센터와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시설이 50+세대가 겪는 상실감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연구에서 50대 이상을 ‘노인’으로 칭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의 세대인 ‘50+세대’로 바라보는 안목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옥선⁶⁾의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표 시설로 노인복지회관을 선정하였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의 여가활동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참여자 개인특성과 자아만족도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점이 이 연구의 목적과 비슷하였다. 여가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또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자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50+캠퍼스·센터의 ‘50+음악커뮤니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왕은희⁷⁾는 노인세대로 들어서는 베이비붐세대를 언급하며 이들이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6) 이옥선(200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왕은희(2012),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생에서 처음 겪는 노년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식 전환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은 50+캠퍼스나 센터가 담당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 모든 연구에 언급된 노인교육, 성인교육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이 바로 “50+캠퍼스·센터”이며, 50+세대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퇴 이후 직면한 50+세대의 인생 이모작과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50+캠퍼스·센터가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50+음악커뮤니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서울시 50+캠퍼스·센터

1) 50+캠퍼스·센터의 배경

2020년을 바라보는 현재, 우리는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시대 움직임 안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제 3의 물결을 넘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냈고 인간의 생활주기와 인생주기를 변화시켰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령지수는 1970년에 비해 6.6배 증가하였고 2019년인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상한다.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고령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사회이슈 중 하나로 자리하였다. 기대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의 삶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평생 학습사회 진입의 단초가 되었다. 고령사회에서의 중·장년과 노년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에 발맞추어, 50+세대의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창조하고자 서울특별시에 가장 먼저 50+재단과 50+캠퍼스·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8) 2019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2019년 3월 23일 접속]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1) 평생교육법

50+캠퍼스·센터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알아보하고자한다. 50+캠퍼스에서의 교육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에서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⁹⁾ 일상에서의 경험과정을 넓은 의미의 ‘평생학습’이라고 바라보는 것이다.¹⁰⁾ 50+재단은 50+캠퍼스를 운영하고 50+센터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 중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생애교육이 포함되어있었다. 이는 50+재단과 캠퍼스·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지방자치법” 제 144조 제 2항¹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하는데 2015년부터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신설되어 시설과 관련된 법령 대신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부터 서울시 “50+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50+캠퍼스와 센터의 운영을 시작하였다.¹²⁾

(2) 노인여가복지시설

“50+캠퍼스와 센터”설립배경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근거는 사회복지행정의 기준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상담,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기관

9) 평생교육법 제 2조 정의

10) 나향진 외 (2011), 평생교육론, 양서원, pp. 23-27

11) 지방자치법 제 144조 2항

12) 50+재단포털 <https://50plus.or.kr/org/intro.do> [2019년 03월 23일 접속]

운영 등인데 50+캠퍼스와 센터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법’은 사회복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여가”란 라틴어의 오티(Otim)과 그리스어의 스킨(Schole)가 근원이다. ‘오티(Otim)’은 모든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태를 뜻하며, ‘스킨(Schole)’는 일종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무로부터 해방된, 한가한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교양을 쌓는 활동을 말한다.¹³⁾ 즉, 예술, 철학, 학문, 스포츠 등의 분야에 참여하는 주체적 행동의 종합이자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여가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역연령¹⁴⁾에 따른 은퇴로 인해 참여하는 비자발적인 행동으로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가활동은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는 참여자 개인이 신체적,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가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이다.¹⁵⁾ 처음에는 지역사회나 사회단체가 개발·정착·실시하였지만 요즘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학교, 직장, 행정단체에서도 선택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조직적인 여가프로그램은 문화적 활동, 지적활동, 스포츠, 사교활동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유형이나 참여 동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¹⁶⁾

13) 최은정 외(2008), 복지기관 여가프로그램 분석 및 기획, 청목출판사, pp. 11-15

14) 역연령이란, 달력에 따라서 세는 나이로, 태양력의 1년으로 한 살을 가산한다. 동물의 성장이나 노화는 반드시 정확하게 역연령에 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골격연령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15) 김미란(2017),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활동이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남성 노인의 색소폰 연주 동아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0-12

16) 최은정 외(2008), 복지기관 여가프로그램 분석 및 기획, 청목출판사, p. 25

(3) 50+세대

50+캠퍼스·센터의 주요 타겟층인 “50+세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50+세대”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제 2의 인생을 맞이한 세대로 베이비붐(baby-boom)세대가 주축을 이루지만 50세 이상의 X세대도 포함하여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대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들만의 특성과 요구를 가진 젊은 어른’인 것이다. 이들은 은퇴 이후 직면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인생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지만 별 다른 지원 없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¹⁷⁾ 현재의 ‘50+세대’는 생산자이자 소비의 주체였으며 그들의 힘으로 사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¹⁸⁾ 부모님부양과 자녀양육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세대였고, 현실적인 제한점이나 한계에 부딪혀 개인을 위한 문화향유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이 은퇴를 기점으로 이들을 새로운 소비계층으로써 자리하게 하였다.

“50+세대”는 자산시장의 중심이자 영향력과 재력을 가졌으며 이것은 새로운 시니어 시대를 여는 힘이 된다. 또한 문화,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여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의지와 소비의 의지가 있는 세대이므로 그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제까지 베이비부머세대는 한국사회 변화의 선두에 위치하였고 이들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변하였다.¹⁹⁾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간 시니어가 된 베이비부머세대에 의해 한국사회는 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부머세대에 해당하는 50-60대 초반 연령대의 사람들은

17) 50+ 재단BR_웹 개재용(홍보물)

18) 정경희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보고서 2010-3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7

19) 백찬규(2017), 베이비 부머, 젊은 노인의 탄생(ACTIVE SENIOR), 베이비부머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꾼다, 원앤원북스 p. 7

스스로를 실제 나이 보다 5-10살 정도 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남은 삶을 보내고자 한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의 50-60대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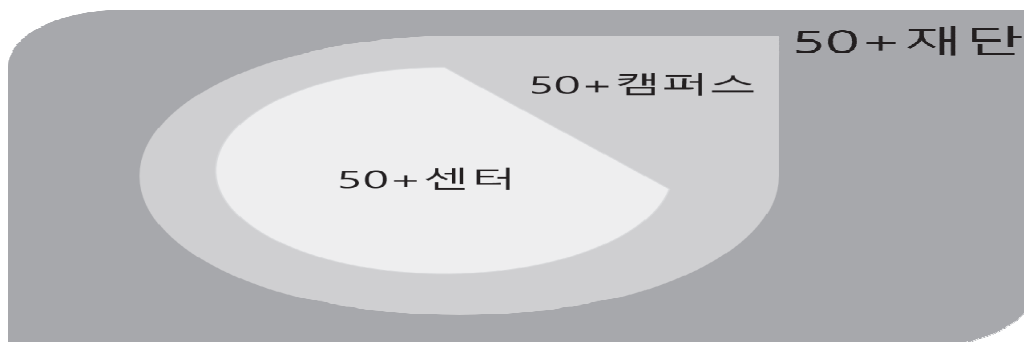
2009년 UN이 발표한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에서 ‘호모헌드레드(Homo Hundred)’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인구의 수명증가’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연령 분류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²⁰⁾ <표 1>과 같이 ‘0-17세’를 미성년자,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 백찬규(2017), 베이비 부머, 젊은 노인의 탄생 (ACTIVE SENIOR), 원앤원북스 pp. 53-55

<표 1> 과거의 연령분류와 UN의 연령분류 비교표

과거(-2008) 우리나라		현재(2009-) UN	
0-14세	유소년	0-17세	미성년자
15-29세	청년층		
30-64세	중·장년층	18-65세	청년
65세 이상	노년층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

2) 50+캠퍼스·센터의 구성과 의의



[그림 1] 50+재단·캠퍼스·센터의 구성

50+재단, 50+캠퍼스·50+센터는 [그림 1]²¹⁾과 같이 50+세대가 되면서 맞이하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단계로 구성된 지원 체계이다. 이 추진체계를 통해 서울시민의 실제 삶과 맞닿은 생생한 50+정책을 만들어 확산하고 실행한다. 현 '50+세대'는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하기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50+세대'의 미래 설계와 인식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의 2항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50+캠퍼스'와 '50+센터'로 구분한다.²²⁾ '50+캠퍼스'는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시설이며, '50+센터'는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시설이다. 여가활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교육에서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50+재단'은 '50+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0+세대'가 '경험 나눔'의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핵심가치²³⁾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21) 50+재단·캠퍼스·센터의 구성 <https://50plus.or.kr/org/intro.do> [2019년 3월 23일 접속]

22) 인생이모작지원과(2017, 0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계획

23) 50+심볼에 담긴 50+재단의 핵심가치 <https://50plus.or.kr/org/intro.do> [2019년 3월 23일 접속] 50+재단의 핵심가치: 일과 삶의 조화, 실험과 혁신, 생각의 전환, 주체적 참여, 재능의 나눔



[그림 2] 50+심볼에 담긴 50+재단의 핵심가치

50+재단은 새로운 노년의 상을 정립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균형 잡힌 ‘인생의 재설계’를 통해 ‘50+세대’의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하는 싱크탱크다. 50+세대를 새로운 기회와 자원으로 인식하며 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50+재단의 주요사업은 정책개발과 캠퍼스 운영, 일자리사업, 신문화확산으로 총 4가지가 있으며 <표 2>와 같다.²⁴⁾

첫째, 정책개발에서는 50+세대가 당면한 현안을 주제로 시의성 있는 50+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그 결과가 50+세대 삶의 실질적 개선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연구를 지향한다.

24)서울시 50+재단의 사업 분류표 <https://50plus.or.kr/org/intro.do> [2019년 3월 23일 접속]

둘째, 일자리 모델 발굴 사업에서는 다양한 50+당사자의 일자리를 모색하고 한국형 양코르커리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일자리 인프라와 콘텐츠를 활용한다. 일자리 인프라는 총 3개의 섹터로 구성되는데 1섹터는 정부, 지자체이고, 2섹터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이며, 3섹터는 비영리단체이거나 사회적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다. 50+재단의 일자리사업은 50+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제 3섹터를 배경으로 하며 50+당사자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적 성취감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하고 사회공헌 등을 일자리 사업의 목표로 삼는다.

셋째, 50+세대의 의미 있는 인생이모작 모델을 제시하고 ‘상담, 교육, 일자리, 활동(사회공헌, 커뮤니티)영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50+정책과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50+캠퍼스와 센터를 활용한다. 50+세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50+문화의 확산을 위한 연중캠페인을 기획하며 미디어와 연계,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위한 콘텐츠 마련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신문화확산사업이란, 공익캠페인, 서울50+축제, 50+ Partner Ship 등을 의미한다. 50+재단과 캠퍼스, 센터를 포괄한 다층적 프로그램 연계와 더불어 문화공연을 통해 50+세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자 하며 세대교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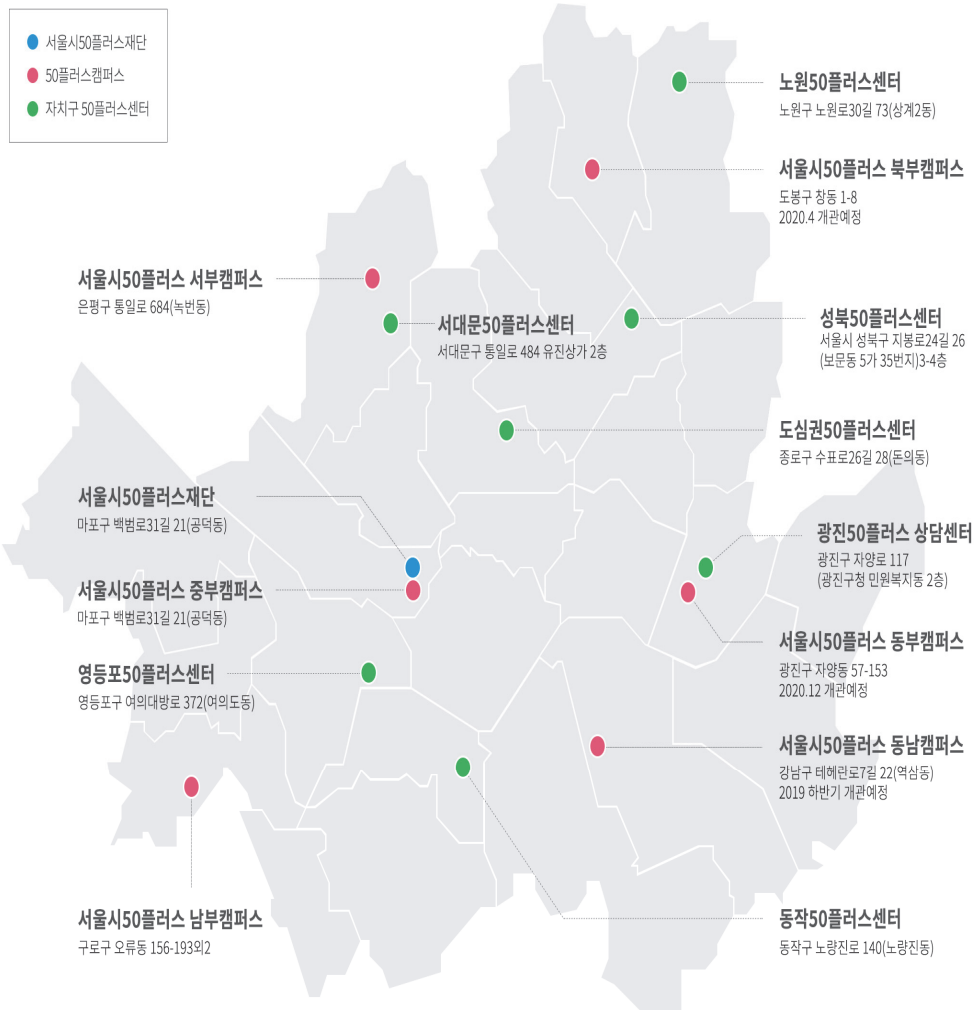
<표 2> 50+재단의 사업 분류

정책개발	정책기획연구	정책-기초-기획-실행
	정책포럼	
	50+ 국제포럼	
	50+ 상담, 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정책 동향 리포트 발간	
일자리 모델 발굴	사회공헌형 일자리	4대 추진방향 5대 추진과제
	양코르 커리어	
	창업·창직	
	50+인재DB구축	
	50+일자리 인프라 구축	
캠퍼스/센터 운영	상담	3개 캠퍼스와 5개 센터 2개 상담센터 (2020년까지 3개 캠퍼스 완공예정)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커뮤니티	
신문화확산	50+틀모델 발굴	서울50+ 축제
	신문화 확산 캠페인	
	사회공감대 형성	
	50+ 모임·단체 지원	
	50+파트너쉽	

2014년에는 50+재단의 캠퍼스가 설립되었으며 3개의 캠퍼스(서부, 남부, 중부)와 5개의 센터(영등포, 노원, 도심권, 서대문, 동작)의 운영이 시작되었

다. 3개의 캠퍼스(북부, 동부, 동남)2020년까지 설립될 예정이며 광진50+상담 센터와 성북50+센터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캠퍼스와 6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50+캠퍼스·센터의 지역별 지도는 [그림 3]²⁵⁾과 같다.

25)서울시 50+캠퍼스·센터의 지역별 지도 <https://50plus.or.kr/org/intro.do> [2019년 3월 23일 접속]



[그림 3]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 지역별 지도

50+캠퍼스에는 인생재설계와 커리어모색, 일상기술학부와 상담센터가 있어 삶과 노후에 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설계를 돕는 인생재설계학부, 일의 의미를 정립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모색하는 커리어모색학부, 독립적이고 즐거운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연마하는 일상기술학부 등 3개의 학부를 운영한다. 50+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종합상담을 통해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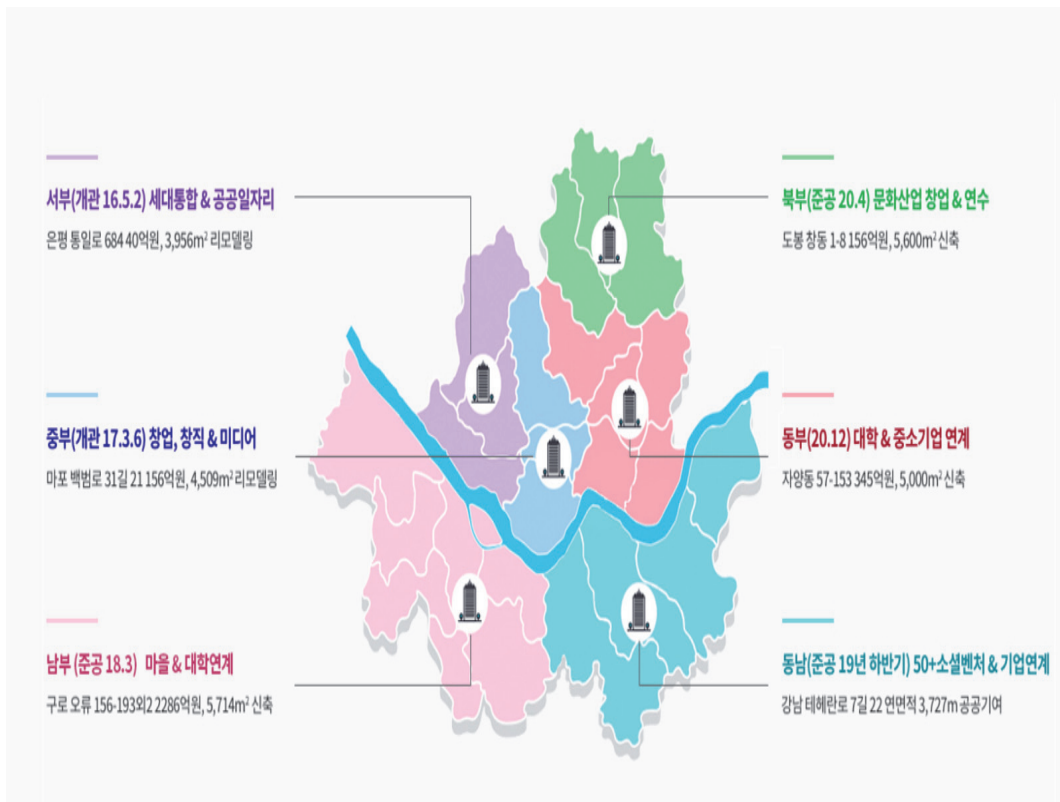
가·문화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받을 수 있고, 동년배인 50+컨설턴트가 50+당사자의 인생2막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설계를 도와준다.

50+캠퍼스는 50+세대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번째 배움 학교이며 50+세대가 요구하는 교육에서부터 일자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이자 새로운 어른문화를 만들어 갈 복합문화공간이다. 50+캠퍼스는 각각 설립지역의 측면을 고려한 특화요소를 갖고 있다.

서부캠퍼스는 ‘보람일자리’가 주요사업이며 2020년 완공예정인 북부캠퍼스는 ‘문화산업 창업과 세대통합, 제 3섹터의 발전’이 주요사업이다. 2020년 12월에 완공예정인 동부캠퍼스는 ‘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특화요소로 선정하였다.

중부캠퍼스는 ‘창업·창직’을 주요사업으로 삼았으며 2019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동남캠퍼스는 ‘소셜벤처기업과의 연계’를 주요사업으로 삼아 특화하고자한다. 남부캠퍼스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특성을 반영해 ‘마을공동체와 대학과 연계한 50+맞춤형 평생학습 및 전문과정’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고자한다. 지역별 50+캠퍼스에 따른 특화사업은 [그림 4]²⁶⁾와 같다.

26) 서울시 지역별 50+캠퍼스에 따른 특화사업 <https://50plus.or.kr/org/intro.do> [2019년 3월 23일 접속]



[그림 4] 지역별 50+캠퍼스의 특화사업

50+센터는 지역구의 50+세대의 활동 공간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50+센터는 50+캠퍼스보다 작은 규모의 자치구 기반 시설로, 50+세대의 교류를 위한 활동 거점이다. 50+센터는 50+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 아카데미 및 인생 재설계 교육, 상담, 사회 참여활동 및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장년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50+세대의 정체성을 반영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50+상담센터를 통해 50+당사자 맞춤형 학습설계, 생애설계 7대 영역²⁷⁾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커뮤니티

27) 생애설계 7영역: 학습 및 자기 개발,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 사회공헌과 봉사,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향상, 노후에 필요한 자산관리, 나만을 위한 여가준비

지원사업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같은 50+일자리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자 하며 50+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교육 수강료는 캠퍼스와 센터 모두 동일하며 비용수납의 형태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50%씩 지원하며 교육받기를 원하는 50+당사자가 일부 부담한다.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50+당사자들을 모집하고 50+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sns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지역버스음성광고 등을 활용한다. 또한 지하철역 출구에 50+캠퍼스와 센터에 대한 표시가 있다.

2. 50+음악커뮤니티

50+캠퍼스·센터의 주력사업이자 이 연구의 핵심주제라 할 수 있는 ‘50+커뮤니티’는 50+세대가 주도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학습자 동아리를 의미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직접 기획,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보람이나 소속감, 그리고 재미를 느끼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우울감이 감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50+음악커뮤니티에서는 오카리나나 팬 플루트, 통기타, 퍼커션과 같은 악기를 사용한 음악커뮤니티가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악기나 노래는 신체를 활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준다. 50+음악커뮤니티 활동에서 더 나아가 공연을 통한 문화조성사업까지 이어진다면 50+세대의 응집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 50+축제”는 50+세대와 시민이 함께 함으로써 “50+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축제이자 50+음악커뮤니티와 참여자들이

직접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1) 은퇴기의 성인학습자

“은퇴”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 직위와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지엽적으로는 “퇴직”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사직을 뜻한다. 은퇴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맺었던 유대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며 퇴직을 기점으로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²⁸⁾ 퇴직을 하나의 위기로 볼 수도, 단순한 일생의 한 과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50+재단, 50+캠퍼스·센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50+캠퍼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50+음악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심리학자 Bernice Neugarten이 과거 노인과는 다른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즐기는 현대의 노인을 칭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여가생활이나 건강유지, 자기계발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친화 8대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고령친화용품, 영양, 주거, 여가) 중 ‘여가 산업’의 성장 폭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²⁹⁾ 이는 시니어 세대의 적극적인 삶의 행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방송진흥공사는 ‘2015 소비자행태조사보고서’에서 액티브 시니어

28) 최해경(2016), 노인복지론-실버산업의 전망-, 학지사, pp. 291-299

29) 백찬규(2017), 베이비 부머, 젊은 노인의 탄생(ACTIVE SENIOR), 베이비부머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꾼다, 원앤원북스 p. 34

(Active Senior)를 새로운 소비주체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시니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³⁰⁾

이들은 은퇴하였기에 직장생활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또 다른 참여를 원한다. 그래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생산적인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통해 “50+세대”가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캠퍼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50+개발사업”은 재교육이나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다양한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해 50+세대가 가진 전문지식 및 기술·자격을 활용하여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연계한다. 이는 퇴직이 또 다른 진로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9년을 기준으로 130년 전인 1889년, 평균수명이 49세일 때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수령의 나이를 65세로 정하였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역연령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의 정립을 위해 대한노인회는 2015년에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정부에서도 2015년 말에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¹⁾

30) 백찬규(2017), 베이비 부머, 젊은 노인의 탄생(ACTIVE SENIOR), 베이비부머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꾼다, 원앤원북스, p. 28

31) 위의 책, p. 54

2)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된 이유이자 그 일을 꾸준히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각 학자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인학습자의 성별, 교육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연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양한 성인들의 참여동기를 유형화한 인물이 바로 Houle이다. Houle가 분류한 참여동기는 <표 3>과 같다.³²⁾

Houle는 성인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참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활동지향, 목적지향 그리고 학습지향으로 나눈다. 활동지향적인 학습자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유지, 개선, 확대에 의미를 두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이다. 이들에게 성인교육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만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이들에게 “50+캠퍼스·센터”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자신의 고독을 피하기 위하여 “50+커뮤니티”를 활용한다.³³⁾

학습지향형 학습자들은 지식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어 지적인 흥미 추구를 가장 우선시하며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목표지향적인 학습자는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 성취하고자 노력한다. 직업적 성취 및 전문성 함양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흥미를 탐색하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참여한다.³⁴⁾

32) 전선영(2013),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평생교육 참여성장에 미치는 영향 : 참여동기 및 학습만족수준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0-46

33) 박웅진(2015), 평생학습동아리 유형에 따른 참여동기와 행복감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24-25

34) 김유미(2017), 노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방안 :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1

임숙경(2007),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동

<표 3> Houle의 참여동기 분류표

Houle의 참여동기	
활동지향	사회적 인간관계의 유지, 개선, 확대를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
학습지향	지적인 흥미 추구, 인격적 성장
목표지향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교육중시

<표 3>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은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배우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며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학습자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많은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Houle의 참여동기의 유형구분을 기준으로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50+커뮤니티 중 50+음악커뮤니티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50+음악커뮤니티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알아보하고자한다.

3. 삶의 만족도

1) 개념

‘삶의 만족도’ 개념은 1961년 Bernice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노인의

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4

삶의 만족도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면서 사용하였다. Bernice Neugarten은 ‘삶의 만족도’에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 것과 낙천적인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의하고자 했지만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삶의 만족도를 정의하거나 측정하지 못하였다.³⁵⁾

2) 구성요인

(1) 삶의 질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삶의 질’, ‘성공적 노화’, ‘여가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삶의 질’은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행복감, 안녕감, 만족감, 좌절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 있는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한다. 연령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를 위한 소비, 나를 위한 투자가 사회의 문화풍토로 자리함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³⁶⁾

WHO는 추상적 개념인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삶의 질’에 대한 공통의 합의점을 찾고자하였다. 삶의 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

35) 김윤중(2017), 세대별 일자리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5-17, 재인용

36) 민성길 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Korean version of WHOQO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 연구소, 하나의학사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으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썼다.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삶의 여러 단면을 추려 만들어진 측정도구가 삶의 질 척도“WHOQOL”이며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WHOQOL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236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어있고 총 24개의 하위척도 facets와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4개의 일반적인 항목(신체적 건강, 심리, 사회적 관계, 환경)으로 구성되어 총 10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WHOQOL-BREF는 WHOQOL의 24개의 척도로부터 하나의 항목씩 선택하여 간략하게 구성한 것이다. 50+캠퍼스와 센터에서의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50+캠퍼스와 센터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건강, 심리,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50+센터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족도 설문지를 구성할 때 WHOQOL-BREF의 질문 중 네 가지 영역에서 여가 활동이나 음악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질문을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2)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은 기원전 44세기 Cicero의 수필 De Senectute (노년에 관하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Cicero는 노년기를 생산적 기능 발휘를 위한 기회로 보았으며 ‘긍정적인 나이 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⁷⁾

‘성공적 노화’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 자기완성을 지향하고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

37) 한송이(2016),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구조모형 선택·최적화·보상(SOC)전략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9-21

기는 중장년부터 노년기까지이며 사회활동과 정서안정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 언급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성공적 노화’란, ‘노화’라는 과정에 적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공적인 노화상태’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활동에서 기쁨을 얻거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상이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낙관적인 상태를 말한다.³⁸⁾ 김동배가 개발한 “성공적 노화척도”를 재구성하였는데 이 척도는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작된 척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 노인에 대한 노화 연구 및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사도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³⁹⁾ 이 척도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인은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그리고 ‘타인 수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척도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인 중 ‘자녀에 대한 만족’을 제외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성공적 노화 요인분류표는 <표 4>와 같다.⁴⁰⁾

<표 4> 성공적 노화 요인 분류표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타인 수용	자기 수용	자녀에 대한 만족

38) 윤지원(2015),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5-16

39)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1 pp. 211-231

40) 김종경(2012),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에 따른 삶 만족도,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

(3)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란 ‘여가’와 ‘만족’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경험의 결과이며 이는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참여동기는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지속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여가활동참여자의 요구충족요인이다.⁴¹⁾ Ragheb과 Griffith는 그들의 연구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성공적인 인식인 ‘여가만족도’는 개인 삶의 질적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⁴²⁾ ‘여가만족도’는 총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심리, 교육, 사회, 휴식, 신체, 환경적 요인이다. 이를 50+음악커뮤니티활동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여가만족척도 하위요인과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정리는 <표 5>와 같다.⁴³⁾

첫째, 심리적 요인은 50+캠퍼스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교육 이후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소속감, 정서적 만족, 성취감을 얻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50+캠퍼스·센터는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재취업과 재교육을 진행하며 50+커뮤니티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참여자들과 서로 가르쳐주며 학습한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 상황, 환경 등을 탐구할 기회인 것이다. 50+캠퍼스·센터에 참여함으로써 50+당사자들은 교육적 요인을 충족하게 된다.

셋째, 50+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바람

41) 오정선(2016), 우쿨렐레 음악학습 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8

42) 박은진(2018), 미혼직장인의 여가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4

직한 인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개인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응을 돕는다.

넷째, 50+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은 각 개인에게 휴식 및 원기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겪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여가활동은 각 개인이 하고자 원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된다.

다섯째, 50+음악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에서 연주하기 위한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를 활용하게 되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50+커뮤니티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성되었다면 환경적 요인이 충족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높은 여가만족도로 나타나게 된다. 50+커뮤니티가 모임을 갖거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면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은 높은 여가만족도를 보일 것이다.

<표 5> 여가만족척도 하위요인과 조작적 정의

원어요인	번안요인	조작적 정의
Psychological	심리적	즐거움, 몰입, 지적인 도전 등과 같은 심리적 이득
Educational	교육적	지적인 자극, 배우는 것을 돕는 것
Social	사회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보상
Relaxation	긴장이완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해소
Physiological	신체적	체력을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Aesthetic	심미적	그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것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개발한 Beard와 Ragheb에 의하면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며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써,⁴⁴⁾ 일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즐거워하는 정도를 뜻한다. 즉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만족되어 느끼는 것이다⁴⁵⁾. 이 연구에서는 6가지 요인들을 모두 포함했고 50+ 세대의 참여자들과 50+음악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질문을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44) 김미량, 이연주, 황선환 (2010), 여가만족척도(LSS-short form)의 타당도 검증과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Vol. 10, No. 11, pp. 435-445

45) 차경숙(2016),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3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의 50+캠퍼스·센터에서 운영되는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 45세-64세까지의 중·장년 168명이다. 총 3개의 캠퍼스와 6개의 센터에서 운영 중인 12개의 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50+음악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경로, 음악활동, 참여 동기 등을 물어보았다. 또한 삶의 질 측정척도, 성공적 노화척도, 여가만족도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를 통해 50+음악커뮤니티활동이 참여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절차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이자 임의표집인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특정 시간과 공간을 정해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며 사전협의를 통해 설문에 동의를 얻은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12개의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 중 168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23일간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 인원수는 <표 6>과 같고 배포된 설문지 168부 모두 유효한 설문지로 선정하여 수집, 조사,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절차는 <표 7>과 같다.

<표 6> 연구대상의 커뮤니티 참여자 인원수

구분	전체 인원수
A커뮤니티	45
B커뮤니티	15
C커뮤니티	13
D커뮤니티	19
E커뮤니티	13
F커뮤니티	15
G커뮤니티	11
H커뮤니티	9
I커뮤니티	12
J커뮤니티	12
K커뮤니티	11
L커뮤니티	11
합계	168

<표 7> 연구절차

연구절차	기간
연구목적 수립	2018년 3월-2019년 6월
WHOQOL-BREF, 여가만족도척도, 성공적 노화척도 활용한 설문지 재구성	2018년 6월-2018년 12월
서울시 50+캠퍼스·센터 내 50+음악커뮤니티 설문조사	2019년 1월-2019년 1월
빈도분석·기술통계·교차분석	2019년 2월-2019년 3월
통계결과 분석 및 결론도출	2019년 3월-2019년 5월

3. 연구도구

50+음악커뮤니티활동이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특성⁴⁶⁾’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설문하기 위한 문항은 삶의 질 척도⁴⁷⁾와 성공적 노화척도⁴⁸⁾, 여가만족도척도⁴⁹⁾를 활용하였으며 참여동기를 물어보는 질문⁵⁰⁾에 대해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동기’로 구분하여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구성은 <표 8>과 같다.

46) 이옥선(200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0

47) 민성길 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Korean version of WHOQO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 연구소, 하나의학사

48)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 1 pp. 211-231

49) 김미량, 이연주, 황선환 (2010), 여가만족척도(LSS-short form)의 타당도 검증과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Vol. 10, No. 11, pp. 435-445

50) 김유미(2017), 노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방안 :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1

<표 8> 설문지 문항분류표

분류	내용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문항예시
참여자특성	성별	1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	1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군	1	3	귀하의 은퇴 전 혹은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참여경로	1	4	50+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귀하께서는 음악커뮤니티에서 얼마나 활동하셨습니다?
	활동기간	1	5	귀하께서는 음악커뮤니티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참여빈도	1	6	귀하께서는 연습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연습시간	1	7	
참여 동기	활동지향	1	8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학습지향	1	9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
	목표지향	1	10	수료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만족도	삶의 질	4	1-4	커뮤니티는 나의 삶의 질을 높였다.
	여가만족도 척도	9	5-13	커뮤니티 활동은 매우 만족스럽다.
총계				23

1) 참여자 특성

설문지에서는 “서울시 50+캠퍼스·센터”를 “50+센터”로 통칭하였다. 50+ 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은퇴 전 혹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을 물어보았다.⁵¹⁾ 또한 50+음악커뮤니티

51) 이옥선(200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1

에서 활동한 기간, 참여빈도와 연습시간을 질문함으로써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음악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참여동기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참여동기를 활동, 목표, 학습동기로 구분하여 다중응답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50+음악커뮤니티의 주제가 ‘음악’인 만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활동한 기간, 참여 빈도, 악기/노래 연습시간 등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음악활동과 참여동기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Boshier(1971), Houle(1961) 그리고 최운실(1985)⁵²⁾의 연구를 토대로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여 작성한 전선영의 질문 도구를 재구성하였다. 학습참여 동기 하위 요인 중 활동지향성 동기관련문항이 8개, 목표지향성 동기관련 문항이 5개였다. 그리고 학습지향성 동기관련문항은 6개로 총 19문항이었으나⁵³⁾ 이 연구에서는 <표 9>와 같이 필요한 문항만 선별, 수정·보완 후 다중응답⁵⁴⁾ 답안으로 사용하였다.

52) 최운실(1986), 成人教育類型에 따른 教育參與 特性分析 = Analysi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by the adult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222-227

53) 전선영(2012),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 및 학습만족수준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7

54) 다중응답이란, 설문지에서 1개 이상의 선택지를 중복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표 9> 참여동기 문항에 대한 다중응답 선택지

참여동기 다중응답 선택지	
활동동기	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② 사회공헌활동 ③ 연주활동 ④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⑤ 지인의 권유 ⑥ 나의 음악능력을 인정받고자
학습동기	① 흥미·소질개발 ②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 ③ 스트레스 해소 ④ 학습욕구충족 ⑤ 보람찬 인생 2모작을 위해
목표동기	① 계획한 일을 위해 ② 교양지식 함양 ③ 수료증·자격증 취득 ④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서

3)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측정 척도’, ‘성공적 노화척도’, ‘여가만족도 척도’를 반영하여 50+ 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한 이후 변화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50+음악커뮤니티 활동이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삶의 질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인 WHOQOL-BREF는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심리·사회·생활환경 영역 등 4개의 영역과 삶의 질에 관한 문항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⁵⁾ 여가와 관련된 생활환경 영역에 관한 질문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물어보는 질문을 선정하여 50+음악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대한 질문으로 재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가 느끼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공적 노화

김동배가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동배의 ‘성공적 노화척도’는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6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자율적 삶에 대한 질문 9문항과 자기완성지향과 관련 있는 6문항, 적극적 인생참여와 관련된 질문 5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에 관련된 5문항,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에 관한 문항은 3문항씩 이루어져 있다.⁵⁶⁾

이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제외하고 각 영역별로 하나의 문항씩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주변관계보다 학습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자했기 때문이다. 성공적 노화측면에서 삶의 만족도를 위해 재구성한 질문은 총 5문항으로 커뮤니티활동을

55) 민성길 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Korean version of WHOQO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 연구소, 하나의학사

56)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 1, p. 223

통해 얻고자하는 개인의 음악목표나 성취감, 소속감을 물어보았다.

(3) 여가만족도

여가 만족 척도는 Ragheb & Griffth에 의해 발전한 LSS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가 만족 척도는 여섯 가지 요인(심리적, 신체적, 교육적, 휴식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과 관련한 문항과 마찬가지로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문항 중 1개씩 선별하였고, 그 중 학습동기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문항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⁵⁷⁾

4)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도 검증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각 회전의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범주 내에 있는 속성의 결합이 내적일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계수 값이 0.60이상이면 내적 일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879와 0.881로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57) 윤지원(2015),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3

<표 10> 요인별 신뢰도분석

요인	문항 수	신뢰도 α	평균	표준편차
삶의 질	4	.879	4.25	.725
			4.13	.784
			4.04	.808
			4.01	.778
여가 만족도	9	.881	4.13	.680
			4.17	.699
			3.80	.889
			3.85	.825
			3.81	.829
			4.16	.699
			4.27	.684
			3.96	.837
			4.43	.613

(2) 타당도 검증

설문지 구성요인분석에서의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요인분석에의 적합성과 변수 간 공통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한다. Bartlett의 검정 값과 KMO(Keiser-Meyer-Olkin)의 측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Bartlett 검정 χ^2 이란,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상관계수 행렬을 검사하는 것으로 이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관계수가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된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Bartlett 검정의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사용된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전체표본적합도’인 KMO값이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 연관성이 높을수록 값이 크다. KMO 값이 0.90이상이면 상당히 좋고, 0.70이상이면 적당하며 0.50이하면 통계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정한다.⁵⁸⁾ 그렇기 때문에 Bartlett 검정 p 값이 0.05 이하이고, KMO 값이 0.8 이상이라면 변수 간의 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이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설문의 13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2 에 대한 p값이 0.000이고, 전체표본적합도(KMO) 값이 0.903이기 때문에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설문지는 ‘삶의 질 척도’와 ‘성공적 노화 척도’, ‘여가만족도척도’에서 필요한 질문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고 설문지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두 요인에 대하여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 요인으로 명명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58)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석정, p. 20

59) 류근관(2013), 통계학, 법문사, p. 78

<표 11> 삶의 만족도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분석

문항	공통성	성분	
		1	2
커뮤니티 내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670	.802	.165
커뮤니티 팀원들과 사회적(연습 外) 교류를 한다.	.600	.734	.248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성취감 / 소속감을 느낀다.	.615	.712	.328
커뮤니티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554	.710	.223
커뮤니티는 나의 삶의 질을 높였다.	.667	.673	.463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음악활동을 하며 잊으려고 한다.	.441	.662	.051
사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깨끗하다.	.495	.660	.243
커뮤니티에서 이루고자 하는 음악목표가 있다.	.476	.557	.407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381	.487	.379
나의 지나온 삶이 보람된다.	.735	.168	.840
나는 인생을 즐길 줄 안다.	.736	.175	.840
나는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787	.335	.821
나의 삶은 가치있고 의미있다.	.658	.292	.757
요인명		여가만족도	삶의 질
Kaiser-Meyer-Olkin 측도		.90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x^2	1298.635
		자유도	78
		p	.000***

$p^* < 0.1$, $p^{**} < 0.05$, $p^{***} < 0.01$

4. 자료처리

연구 과제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기로 기입된 설문지를 데이터화하는 코딩과정을 거쳐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ver.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 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된 변수의 특성과 표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함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문항에는 총화평정척도 (Likert Scale) 5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으며 Scheffé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다섯째,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기 위한 복수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음악활동과 참여동기 간 교차분석을 위하여 활동동기와 참여기간, 학습동기와 참여빈도, 목표동기와 연습량에 대한 복수응답을 백분위처리 후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1$, $p < 0.05$,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표 12> 통계 용어정리

빈도분석	각기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나 응답 범주의 나타난 횟수를 알아보는 분석
기술통계	대표값이나 산포도 등을 알아보는 분석
독립표본 t-test	두 집단 간의 평균비교를 통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증방법
일원분산분석 (Oneway-Anova)	원래 분산을 밝히고 나누어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변량분석이라고도 함
KMO (Kaiser-Meyer-Olkin)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나 값
사후분석	F검정이 유의한 경우 개별 평균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정으로 어느 평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과정
다중반응분석	다중응답을 한 자료에 대한 빈도자료를 행과 열로 제시하는 이분형 분석방법
교차분석	명목이나 서열수준과 같은 변인들에 대한 케이스의 교차빈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차빈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 카이제곱검정이라고도 함 ⁶⁰⁾

60) 정미미, 윤승호, 엄한주, 강서기, 김도진, 장채욱, 조은형(2005).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상호작용의 사후검정방법, Vol. 7 No. 1 pp. 33-34

IV. 연구결과 분석

1. 서울시 50+ 캠퍼스·센터별 음악커뮤니티 현황분석⁶¹⁾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총 3개의 캠퍼스와 5개의 센터 중 서대문 센터만이 음악과 관련된 강좌가 없었고 음악커뮤니티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이점을 발견한 이후 직접 각 지역에 있는 50+캠퍼스와 센터 현장을 방문하였다.

50+서대문센터는 시장 주변 상가 2층에 위치한다는 점 때문에 음악관련 수업의 진행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기연주를 하거나 합창을 했을 때 시끄럽다는 신고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이를 방지할 방음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기에 음악관련 강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음악관련 강좌를 운영하는 대신 다른 캠퍼스나 센터와 다른 특이한 점은 “무용”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몸을 사용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관련 수업은 50+당사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으며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시설 이용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관계자와의 간략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50+서대문센터 외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50+캠퍼스·센터”의 50+음악커뮤니티의 현황은 <표 13>, <표 14>와 같다.

61) 서울시 50+포털사이트, <https://50plus.or.kr/> [2019년 3월 23일 접속] (2019년 1월 기준)

<표 13> 서울시 50+캠퍼스별 음악커뮤니티 현황분석

지역	커뮤니티 명칭	프로그램	위치
남부 50+캠퍼스	라온예술단	오케스트라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36-25
	우쿠~랄라 한마당	우쿨렐레	
	50+ 남부 소리새	합창	
	멋진 인생 예술 공연단	문화예술	
서부 50+캠퍼스	해금爰	해금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50+ 아카펠라	아카펠라	
중부 50+캠퍼스	50+ 합창단	합창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서울사랑 오카리나	오카리나	
	얼씨구	사물놀이	

<표 14> 서울시 50+센터별 음악커뮤니티 현황분석

지역	커뮤니티 명칭	프로그램	위치
도심권 50+센터	아다지오	플룻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금노리	해금	
	산들애 오카리나	오카리나	
	퍼커션 떼아모	퍼커션	
	우쿨사랑	우쿨렐레	
동작 50+센터	오카리나 하모니	오카리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 빌딩 2층
	우쿨렐레프렌즈	우쿨렐레	
	노들 나드리	사물놀이	
	동작통기타	통기타	
노원 50+센터	우쿨렐레 팀리조이스	우쿨렐레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30길 73
	La Voce	노래	
	은하수트럼펫	트럼펫	
	반달하모니카	하모니카	
	청바지뮤직힐링	퍼커션	
영등포 50+센터	해피퍼커션	퍼커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2 3-4층
	한강싱어즈	합창	
	소리여울팬플룻	팬플룻	
	소리새	오카리나	
	소리향기	오카리나	
	청춘아코디언	아코디언	
	신나는 우쿨렐레	우쿨렐레	
	기타사랑	통기타	

2. 서울시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총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먼저 성별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65명(34.9%), 여자는 121명(65.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캠퍼스 및 센터의 이용대상연령인 45-64세를 기준으로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40대는 12명(6.5%), 50대는 67명(36.0%), 60대 이상은 107명(57.5%)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50+캠퍼스·센터 이용자들의 전·현재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전문·관리직 종사자였던 사람들은 총 83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기술직은 15명(8.1%)으로 가장 적었다.

50+캠퍼스·센터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어떻게 50+캠퍼스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지인소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86명 중 97명으로 52.2%였다. 퇴직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5명으로 8.1%였으며, 이를 통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교육에서 50+캠퍼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0+음악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기간, 참여빈도, 연습시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단별로 분류하였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활동 기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1년 미만'이 72명으로 38.7%이었으며 '1-2년'은 63명으로 33.9%였다. 즉, '1년 미만에서부터 2년까지'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참여자는 135명으로 총 설문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50+음악커뮤니티의 참여빈도란 일주일을 기준으로 몇 번 함께 모여 연습할지에 대한 횟수를 의미한다. 참여빈도는 '격주, 주 1회, 주2-3회 이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음악커뮤니티 모임을 주 1회 진행하는 커뮤니티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자 186명 중 146명으로 78.5%를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연습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하’, ‘1-2시간’, ‘3-4시간’, ‘기타’ 모두 20% 내외의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라는 응답 중 “연습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과 “5시간 이상” 등이 있었으며 <표 15>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표이다.

<표 1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65	34.9
	여자	121	65.1
연령	40대	12	6.5
	50대	67	36.0
	60대 이상	107	57.5
직업	전문·관리직	83	44.6
	서비스직	24	12.9
	생산·기술직	15	8.1
	기타	64	34.4
알게 된 경로	인터넷(버스) 광고	32	17.2
	전단지광고	14	7.5
	퇴직교육	15	8.1
	지인소개	97	52.2
	기타	28	15.1

활동기간	1년 미만	72	38.7
	1-2년	63	33.9
	2-3년	41	22.0
	3-4년	6	3.2
	4년 이상	4	2.2
참여빈도	격주	8	4.3
	주 1회	146	78.5
	주 2-3회 이상	32	17.2
연습시간	1시간 이하	41	22.0
	1-2시간	55	29.6
	3-4시간	52	28.0
	기타	38	20.4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구성요인인 ‘삶의 질’과 ‘여가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삶의 질’의 평균은 4.10이며 표준편차는 .663이다. 여가만족도의 평균은 4.06이며 표준편차는 .541이다. Likert 5점 척도 중 4점 이상이기 때문에 설문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규성 검정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왜도란 ‘수치가 좌우로 치우쳐진 정도’를 의미하며 첨도란 ‘그래프의 뾰족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첨도가 높을수록 그래프가 뾰족하며 첨도가 낮을수록 그래프가 완만하다.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보고,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⁶²⁾ 이 연구의 설문지 응답에 대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표 16>과 같으며 설문지의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삶의 질	186	1.25	5.00	4.10	.663	-.480	.627
여가만족도	186	2.67	5.00	4.06	.541	.061	-.574

3. 50+음악커뮤니티 활동이 참여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에 대한 분석

(1) 성별

삶의 만족도 중 ‘삶의 질’에 대한 요인과 성별을 비교할 때 t값은 2.487(p=0.014)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은 각각 3.94와 4.19로 여성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만족도요인과 성별을 비교했을 때 t값은 2.115(p=0.002)로 유의수준

62) 이종환(2010), 조사방법론 및 SPSS 통계분석, 공동체. p. 30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은 각각 3.89와 4.15이었고, 여성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여가만족도 모두 남성보다 더 높으며 성별에 따른 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86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

(n=186)

구분	성별	N	평균(M)	표준편차(SD)
삶의 질	남	65	3.94	.59
	여	121	4.19	.68
<i>t(p)</i>		2.487(0.014)***		
여가만족도	남	65	3.89	.50
	여	121	4.15	.54
<i>t(p)</i>		2.155(0.002)***		

$p^* < 0.1$, $p^{**} < 0.05$, $p^{***} < 0.01$

(2) 연령

삶의 질 만족도나 여가만족도요인 모두 F값이 0.495, 1.167(p=0.610, p=0.314)로 유의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설검정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하였고 이는 연령에 따라 삶의 질 만족과 여가만족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삶의

질'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는 집단에 따라 3.9이상 4.13이하이며, 여가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3.7이상 4.2이하로 나타났다. Likert 5점 척도 중 4점 이상 이기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알아보기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연령대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

(n=186)

구분	연령대			F(p)	
	40대 (n=12)	50대 (n=67)	60대 이상 (n=107)		
삶의 질	평균	3.93 ^a	4.09 ^b	4.13 ^c	0.495(0.610)
	(SD)	(5.86)	(7.09)	(6.40)	
scheffé			n/a		
여가만족도	평균	3.70 ^a	4.05 ^b	4.20 ^c	1.167(0.314)
	(SD)	(3.80)	(5.47)	(5.18)	
scheffé			n/a		

$p^* < 0.1$, $p^{**} < 0.05$, $p^{***} < 0.01$

(3) 직업

은퇴는 자신이 몇 십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일생의 한 과업이다. 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고 일생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현재의 직업을 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다양한 개

인적 특성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분류된 직업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관리직, 서비스직, 생산·기술직, 기타”라는 4개의 집단을 설정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9>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F값은 10.160(p=0.000)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집단은 “전문·관리직”으로 4.31이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집단은 3.63의 “서비스직”이었다.

여가만족도는 F값이 6.170(p=0.001)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의 평균점수는 4.17이며, 서비스직의 평균점수는 3.70이었다.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삶의 만족도 두 요소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를 통해 직업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9> 직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n=186)

구분	직업				F(p)	
	전문 관리직 (n=83)	서비스직 (n=24)	생산 기술직 (n=15)	기타 (n=64)		
삶의 질	평균 (SD)	4.31 ^a (5.60)	3.63 ^b (7.20)	3.68 ^c (5.90)	4.11 ^d (6.50)	10.160 (0.000)***
		scheffé				b·c < c·d < d·a
여가만족도	평균 (SD)	4.17 ^a (5.59)	3.70 ^b (4.48)	3.82 ^c (5.18)	4.11 ^d (4.80)	6.170 (0.001)***
		scheffé				b < d·a

*p** < 0.1, *p*** < 0.05, *p**** < 0.01

(4) 활동기간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조사가 시행되고 50+캠퍼스·센터가 운영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는 50+음악커뮤니티의 운영기간과 비슷하기에 50+커뮤니티참여자들의 음악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50+음악커뮤니티에서의 활동기간을 조사하였다.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의 5개의 집단을 설정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삶의 질에 대한 F값은 0.994($p=0.412$)로 나타났으며 50+캠퍼스·센터의 50+음악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기간과 ‘삶의 질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별 평균점수는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났기에 높은 삶의 질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기간에 따른 여가만족도 F값은 2.167($p=0.074$)로 나타나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50+음악커뮤니티의 활동기간은 참여자의 여가만족도를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가만족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5개 집단의 평균점수는 ‘1-2년’ 집단의 3.93을 제외하면 모두 4.0보다 컸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집단은 ‘3-4년’으로 4.27이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낮은 여가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1-2년’이며, 이들의 평균점수는 3.93이었다.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수록 여가만족도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통해 커뮤니티의 활동기간과 여가만족도가 정(+)의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0+음악커뮤니티의 활동기간이 ‘삶의 질’만족요인과 비교했을 때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든 집단의 평균점수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집단에 상관없이 높은 ‘삶의 질 만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0> 활동기간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

(n=186)

구분	활동기간					F(p)	
	1년 미만 (n=72)	1-2년 (n=63)	2-3년 (n=41)	3-4년 (n=6)	4년 이상 (n=4)		
삶의 질	평균	4.05 ^a	4.03 ^b	4.27 ^c	4.25 ^d	4.18 ^e	0.994
	(SD)	(6.90)	(7.30)	(5.30)	(4.20)	(3.80)	(0.412)
scheffé			n/a				
여가만족도	평균	4.05 ^a	3.93 ^b	4.23 ^c	4.27 ^d	4.16 ^e	2.167
	(SD)	(5.30)	(5.50)	(5.20)	(5.30)	(4.50)	(0.074)*
scheffé			n/a				

$p^* < 0.1$, $p^{**} < 0.05$, $p^{***} < 0.01$

(5) 참여빈도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곳(호스피스, 요양원, 병원, 복지센터 등)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빈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참여 빈도는 “격주, 주 1회, 주 2-3회”로 설정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삶의 질에 대한 F값은 2.051(p=0.132)이었고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보면 ‘격주’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의 삶의 질 평균점수가 4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참여빈도 집단에 상관없이 높은 ‘삶의 질 만족’을 보인다.

여가만족도요인과 50+음악커뮤니티의 참여빈도를 비교했을 때의 F값은

2.843(p=0.061)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격주, 주 1회, 주 2-3회” 집단의 평균은 각각 3.80과 4.05, 그리고 4.20이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점수 4.20의 집단은 참여빈도가 “주 2-3회”인 집단이었고 가장 낮은 평균점수는 3.70의 “격주”집단이였다. 이를 통해 50+음악커뮤니티의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참여빈도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

(n=186)

구분	참여빈도			F(p)	
	격주 (n=8)	주 1회 (n=146)	주 2-3회 (n=32)		
삶의 질	평균	3.65 ^a	4.11 ^b	4.17 ^c	2.051(0.132)
	(SD)	(3.50)	(6.79)	(6.13)	
scheffé			n/a		
여가만족도	평균	3.70 ^a	4.05 ^b	4.20 ^c	2.843(0.061)*
	(SD)	(3.80)	(5.47)	(5.18)	
scheffé			a < c		

$p^* < 0.1$, $p^{**} < 0.05$, $p^{***} < 0.01$

(6) 연습시간

50+음악커뮤니티활동을 통해 많은 무대를 준비하고, 악기를 더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혹은 자연스럽게 노래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습시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습 또한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음악활동의 일부로 보았고 “1시간 이하, 1-2시간, 3-4시간, 기타”라는 4개의 집단을 설정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삶의 질에 대한 F값은 1.724($p=0.164$)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0.1보다 큰 값이기에 연습시간에 따른 삶의 질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참여빈도와 연습시간에 대한 통계결과의 공통점은 50+음악커뮤니티에서의 활동기간, 활동 빈도, 연습시간과 삶의 질 요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은 집단에 상관없이 높은 '삶의 질 만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연습시간과 여가만족에 대한 F값은 4.975($p=0.002$)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각각의 평균은 3.84와 4.13, 4.23, 3.95로, 가장 큰 점수인 4.23의 집단은 '3-4시간'이었고 이와 반대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3.84의 집단은 '1시간 이하'였다.

50+음악커뮤니티의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여가만족도를 보인 것처럼 연습시간이 길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았다. 50+음악커뮤니티에서의 음악활동은 '여가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설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내적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연습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차이

(n=186)

구분	연습시간				F(p)	
	1시간 이하 (n=41)	1-2시간 (n=55)	3-4시간 (n=52)	기타 (n=38)		
삶의 질	평균	4.02 ^a	4.00 ^b	4.26 ^c	4.13 ^d	1.724
	(SD)	(6.70)	(7.30)	(6.00)	(6.60)	(0.164)
scheffé			n/a			
여가만족도	평균	3.84 ^a	4.13 ^b	4.23 ^c	3.95 ^d	4.975
	(SD)	(5.10)	(5.30)	(5.40)	(5.10)	(0.002) ^{***}
scheffé			a < c			

$p^* < 0.1$, $p^{**} < 0.05$, $p^{***} < 0.01$

4. 서울시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참여 동기 빈도분석

<표 23>은 50+음악커뮤니티 참여 동기에 관한 빈도분석결과이다. 참여 동기를 “활동동기, 학습동기, 목표동기”로 구분하여 복수선택이 가능한 다중응답으로 제작하였다. 활동동기는 총 6개의 선택지로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사회공헌활동, 연주활동,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지인의 권유, 나의 음악능력을 인정받고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에 응답한 사람은 115개(32.1%)이며 가장 많았다. ‘지인의 권유’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총 13개(3.7%)였다.

참여동기를 물어보는 선택지는 총 5개로 구성되어 ‘흥미·소질 계발,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 스트레스 해소, 학습 욕구충족, 보람찬 인생 2모작을 위해’ 등

이 있다. ‘흥미·소질 계발’에는 91명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총 인원의 26.4%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학습 욕구충족’은 34개(9.9%)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으며 ‘보람찬 인생 2모작을 위해’에 응답한 사람은 총 89개(25.8%)이었다.

목표동기와 관련된 선택지는 ‘계획한 일을 위해, 교양지식함양을 위해, 수료증·자격증 취득,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동기에 대한 4개의 선택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교양지식 함양을 위해’라는 선택지였다. 총 131개로, 54.9%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과반 이상의 응답률이었다. 교양지식 함양과는 반대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선택지는 ‘수료증·자격증 취득’은 17개로 7.2%임을 확인하였다.

<표 23> 연구 대상자의 참여 동기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항목	빈도	%
활동동기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75	21.1
	사회공헌활동	56	15.8
	연주활동	80	22.5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115	32.1
	지인의 권유	13	3.7
	나의 음악능력을 인정받고자	17	4.8

	흥미·소질 계발	91	26.4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	87	25.2
학습동기	스트레스 해소	44	12.8
	학습 욕구충족	34	9.9
	보람찬 인생 2모작을 위해	89	25.8
	계획한 일을 위해	37	15.2
목표동기	교양지식함양	131	54.9
	수료증, 자격증 취득	17	7.2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55	22.8

5.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의 커뮤니티 참여동기와 음악활동 간 연관성 분석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활동, 학습, 목표동기’에 따른 ‘활동기간, 참여빈도, 연습시간’을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요인 간의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구성되어있어 백분위 처리 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50+음악커뮤니티 활동기간에 따른 활동

동기는 집단마다 달랐으며 연습시간에 따른 목표동기 또한 모든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1) 활동기간과 활동동기 간 교차분석

설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백분위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활동동기에 대한 응답 개수는 총 335개로 조사되었으며 ‘새로운 관계형성’을 선택한 기간별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단은 38.6%를 보인 ‘1-2년’집단이며, ‘사회공헌활동’을 선택한 기간별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단은 39.2%의 ‘2-3년’집단이다. 활동동기 중 ‘지인의 권유’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단은 61.5%의 ‘1년 미만’의 집단이다. 60%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50+음악커뮤니티에서 활동한지 ‘1년 미만’인 사람들에게 ‘지인의 권유’동기가 다른 활동동기보다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통해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활동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활동기간과 활동동기 간 교차분석

활동기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총계
새로운 관계형성	N(개)	25	29	16	1	4	75
	동기/(%)	33.5	38.6	21.3	1.3	5.3	100.0
사회공헌 활동	N(개)	12	17	22	4	1	56
	동기/(%)	21.4	30.3	39.2	7.1	1.8	100.0

연주활동	N(개)	28	22	26	3	1	80
	동기/(%)	35.0	27.5	32.5	3.8	1.3	100.0
같은 관심사	N(개)	39	42	26	4	3	114
	동기/(%)	34.2	36.8	22.8	3.5	2.6	100.0
지인의 권유	N(개)	8	3	2	0	0	13
	동기/(%)	61.5	23.1	15.4	0.0	0.0	100.0
음악능력 인정 받고자	N(개)	8	3	5	0	1	17
	동기/(%)	47.1	17.6	29.4	0.0	10.0	100.0
활동동기	총계(N)	120	116	97	12	10	335
	설문대상자 총 인원	72	63	41	6	4	186(명)

2) 참여빈도와 학습동기 간 교차분석

설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백분위한 결과를 학습동기에 따라 참여빈도로 분석해보면 다중응답의 개수는 총 347개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학습동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주 1회’ 집단인데 ‘흥미·소질계발’은 74.7%이며,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은 75.8%등으로 나타나며 모든 학습동기가 7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50+음악커뮤니티참여자들의 참여빈도와 학습동기 간 교차 분석의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참여빈도와 학습동기 간 교차분석

참여빈도		격주	주 1회	주 2-3회 이상	총계
흥미소질 계발	N(개)	5	68	18	91
	동기/(%)	5.4	74.7	19.7	100.0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	N(개)	3	66	18	87
	동기/(%)	3.4	75.8	20.6	100.0
스트레스 해소	N(개)	3	33	8	44
	동기/(%)	6.8	75.0	18.1	100.0
학습욕구 충족	N(개)	0	24	10	34
	동기/(%)	0.0	70.5	29.4	100.0
보람찬 인생 2모작을 위해	N(개)	2	70	17	89
	동기/(%)	2.2	78.6	19.1	100.0
학습동기	총계(N)	15	261	71	347
	설문대상자 총 인원	8	146	32	186(명)

3) 연습시간과 목표동기 간 교차분석

설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백분위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중응답의 개수는 총 237개로 조사되었다. 목표동기 중 ‘계획한 일을 위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연습시간 ‘그 외’ 집단인데 총 3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양지식함양’이라는 목표동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연습시간 ‘1-2시간’의 집단으로, 30%의 비중을 보인다. ‘수료증·자격증 취득’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집단은 연습시간 ‘3-4시간’의 집단으로 그 비율은 58.8%이다. ‘음악교육의 부족’이라는 목표동기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습시간 집단은 27.7%를 보인 ‘1-2시간’집단과 ‘그 외’집단(연습시간 5시간 이상 혹은 연습을 하지 않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연습시간과 목표동기 간 교차분석

연습시간		1시간 이하	1-2시간	3-4시간	그 외	총계
계획한 일을 위해	N(개)	6	7	10	13	36
	동기/(%)	16.6	19.4	27.7	36.1	100.0
교양지식 함양	N(개)	25	39	37	29	130
	동기/(%)	19.2	30.0	28.4	22.3	100.0
수료증· 자격증 취득	N(개)	2	5	10	0	17
	동기/(%)	11.7	29.4	58.8	0.0	100.0
음악교육 의 부족	N(개)	13	15	11	15	54
	동기/(%)	24.0	27.7	20.3	27.7	100.0
목표동기	총계(N)	46	66	68	57	237
	설문대상자 총 인원	41	55	52	36	186(명)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50+캠퍼스와 4개의 50+센터 중 50+음악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은 곳은 1곳이었고 3개의 캠퍼스에는 9개의 커뮤니티가, 4개의 센터에는 22개의 커뮤니티가 조사되어 총 31개의 50+음악커뮤니티가 존재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13개의 문항은 ‘삶의 질’과 ‘여가만족도’라는 두 요인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를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요인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연령을 제외한 성별, 직업, 활동기간, 참여빈도, 연습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시니어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김서일⁶³⁾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성별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직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집단은 ‘전문·관리직’이었고 가장 낮은 평균점수의 집단은 ‘서비스직’이었다. 직업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직업적 특징이나 성향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안병훈⁶⁴⁾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의 참여도

63) 김서일(2017), 시니어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62

64) 안병훈(2008), 공무원의 여가활동과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2

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50+음악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기간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기간 “3-4년”인 집단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장 낮은 점수의 집단은 “1-2년”이었다. 50+음악커뮤니티 참여빈도와 연습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빈도와 연습시간은 ‘여가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비례관계를 갖는다. 이는 50+음악커뮤니티활동에 대하여 활동기간, 참여빈도, 연습시간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인이 누락된 채 진행된 최한수⁶⁵⁾의 결과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해서는 집단 간 비교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든 집단에서 ‘삶의 질’에 대한 평균점수가 4점 이상으로 나타났기에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은 높다고 할 수 있다.

50+음악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음악활동에 따른 참여동기를 교차 분석하였다. 활동동기 중 ‘지인의 권유’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단은 ‘1년 미만’의 집단이었다. 60%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50+음악커뮤니티에서 활동한지 ‘1년 미만’인 사람들에게 ‘지인의 권유’동기가 다른 활동동기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음악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기간 ‘1년 미만’인 집단과 ‘1-2년’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한 활동동기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자’라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인간관계의 확장’임을 알 수 있었다.

참여빈도와 학습동기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에 따른 참여빈도로 비교해보면 참여빈도 집단 중 ‘주 1회’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모든 학습동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주 1회’ 집단이었다. 모든

65) 최한수(2018), 여가활동 유형 및 속성에 따른 여가만족도 연구 - 서울시 근린공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97-98

학습동기가 7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학습동기 없이 모든 학습동기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참여자들에게 모든 학습동기가 50+음악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양지식함양’이라는 목표동기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집단은 ‘1-2시간’의 집단이며, ‘수료증·자격증 취득’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연습시간 ‘3-4시간’의 집단이었다. 5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음악교육의 부족’이라는 목표동기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습시간 집단은 27.7%의 비중을 동일하게 차지한 ‘1-2시간’집단과 ‘그 외’집단(연습시간 5시간 이상 혹은 연습을 하지 않음)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연습시간이 긴 참여자일수록 ‘수료증·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50+캠퍼스와 센터는 설립·운영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현재의 운영현황을 파악했으며 그 안에서 운영되는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커뮤니티활동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통계결과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했으며, 50+음악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그들의 음악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여가만족도’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가 대부분 4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50+음악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가활동으로써 음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결과이다.

활동기간에 따른 여가만족도 통계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도기적인 시기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흥미를 재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Arte 2018 아카데미연수좌담회에서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5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자들의 ‘창의적 나이 듦’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의적 나이 듦’을 위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으로는 50+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있으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으로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⁶⁶⁾ 이를 근거로 50+음악커뮤니티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참여자들이 느끼는 권태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예로, 50+음악커뮤니티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미션을 정하고 수행한다면 50+음악커뮤니티활동과 참여자 개인의 삶이 공존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며 연구대상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50+캠퍼스·센터”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정책운영의 현장조사 자료로써,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음악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6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2018년 아르떼(Arte) 아카데미 연수 성과집 pp. 39-41

참 고 문 헌

- 권대봉(2001),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서울: 학지사
- 김종서(2002),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나항진(2004), 노인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나항진, 김경수, 김형수, 구본영, 박영미, 신정혜(2011), 평생교육론, 서울: 양서원
- 남정걸(2002),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교육과학사
- 류근관(2013), 통계학, 법문사
- 민성길, 김광일, 박일호(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Korean version of WHOQO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
학 연구소, 서울: 하나의학사
- 배석영, 박성희, 박경호, 황치석, (2010), 평생교육론, 서울: 양서원
- 백찬규(2017), 베이비 부머, 젊은 노인의 탄생(Active Senior), 베이비부머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꾼다, 서울: 원앤원북스
- 윤여각, 강영희, 김미란, 노병윤, 박선경, 신민선, 이규선, 이상엽, 유정규, 유창
복, 조성희(2013), 지역평생교육: 사례와 과제, 서울: 한국방송통
신대학교출판문화원: 에피스테메
-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석정
- 이종환(2010), 조사방법론 및 SPSS 통계분석, 공동체
- 이창희, 김병, 문수열, 원기연, 소광섭, 조당호, 이창수(2012),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서울: 창지사
- 장승옥, 정은아, 김주영, 권은정, 차동석(2011),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청목출
판사
-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

- 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보고서
2010-30-18,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정, 권구영, 김영란, 최용, 조준, 양정남(2008), 복지기관 여가프로그램 분석 및 기획, 서울: 청목출판사
- 최해경(2016),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미란(2017),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활동이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남성 노인의 색소폰 연주 동아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미(2017), 노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방안 :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중(2017), 세대별 일자리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경(2012),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에 따른 삶 만족도,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용진(2015), 평생학습동아리 유형에 따른 참여동기와 행복감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진(2018), 미혼직장인의 여가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병훈(2008), 공무원의 여가활동과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2
- 오정선(2016), 우쿨렐레 음악학습 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왕은희(2012),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지원(2015),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준(2017),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옥선(200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숙경(2007),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선영(2013),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평생교육 참여성장에 미치는 영향 : 참여동기 및 학습만족수준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경숙(2016),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대한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운실(1896), 成人教育類型에 따른 教育參與 特性分析 = Analysi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by the adult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송이(2016),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구조모형 선택·최적화·보상(SOC)전략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 1 pp. 211-231
- 김미량, 이연주, 황선환 (2010), 여가만족척도(LSS-short form)의 타당도 검증

과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Vol. 10, No. 11, pp. 435-445

정미미, 윤승호, 엄한주, 강서기, 김도진, 장채욱, 조은형(2005).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상호작용의 사후검정방법. Vol. 7, No. 1 pp. 33-34

고령인구비율, 통계청(2019)

평생교육법 제 2조 정의

지방자치법 제 144조 2항

인생이모작지원과(2017. 0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계획

50+재단포털 <https://50plus.or.kr/org/intro.do>

서울시 50+포털사이트 <https://50plus.or.kr>

50+센터 조직도 <https://50plus.or.kr/org/new-culture.d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2018년 아르떼(Arte) 아카데미 연수 성과집

ABSTRACT

A Survey on the State of Campus·Center Music Communities for 50+ Years of Age in Seoul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ommunity Participants

Kim, Eui You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following paper is a study on the participants of the Seoul City's Campuses and Centers for citizens 50+ years of age("50+"), operated since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life of members who belong to music communities formed naturally by the campus or center participants. The investigation includes a demographic analysis of the study's participants and the influence of musical activities in the aforementioned 50+ music communities on their level of satisfaction in life. The results of the study, based on a cross-tabulation analysis between participants' multi-response survey of the 50+ music community members' motivation for joining and their music activities, are as follows:

Firstly, out of the three 50+ campuses and the four 50+ centers that

were currently in operation, only one did not have a 50+ music community. The three 50+ campuses had seen nine communities, and the four 50+ centers had seen twenty two communities come to formation. Thus, the total number of 50+music communities is thirty one.

Secondly, participants of the 50+ music communities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what it meant by 'satisfaction in life' according to gender; female members found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in leisure" as important factors of "satisfaction in life", more than male member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s.

Thirdly, among different occupations, those in the "professional managerial class" category recorded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in life' and those in "service employees" category recorded the lowest.

Fourthly, musical activities (as a function of duration of participation, frequency of attendance, and amount of practice time) of participants in the 50+ music communiti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satisfaction in leisure'. Those who have been members of their community for 2-3 years showed the highest average score of 'satisfaction in leisure'. Furthermore, higher frequency of attendance and amount of practice time were closely related to higher 'satisfaction in leisure'.

Finally, 50+ music community member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ir duration of participation differed among the communities. Furthermore, all communities showed varying results on their members' motivational objective according to the amount of practice time.

With the findings outlined above, a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members of 50+ music communities ha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meaning of 'satisfaction in life'. Most communities recorded over 4 points on average on the question about 'quality of life', indicating that members of the 50+ music communities have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life (satisfaction in leisure, quality of life), confirming the remarkable role and function of music in the lives of populations 50+ years of age. The following report shall be utilized as field research for policy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and an advanced study for lifelong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the aging society.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50+캠퍼스·센터의 음악커뮤니티의 현황과 그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음악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주신 결과에 틀리거나 맞는 답은 없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연구 자료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연구자: 김의영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귀하의 연령은? 40대 50대 60대 이상

3. 귀하의 은퇴 전 or 현재 직업은?
 전문·관리직 서비스직 생산·기술직 기타

4. 50+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버스)광고 전단지 퇴직교육 지인소개
 기타

5. 귀하께서는 음악커뮤니티에서 얼마나 활동하셨습니까?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6. 귀하께서는 음악커뮤니티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격주 주1회 주 2~3회 이상

7. 귀하께서는 악기연주 연습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십니까?

1시간 이하 1~2시간 3~4시간 기타()

8. **활동동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칸에 √해 주십시오.

(복수√가능)

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② 사회공헌활동 ③ 연주활동

④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⑤ 지인의 권유

⑥ 나의 음악능력을 인정받고자

9. **학습동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칸에 √해 주십시오.

(복수√가능)

① 흥미·소질계발 ②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 ③ 스트레스 해소

④ 학습 욕구충족 ⑤ 보람찬 인생 2모작을 위해

10. **목표동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칸에 √해 주십시오.

(복수√가능)

① 계획한 일을 위해 ② 교양지식 함양 ③ 수료증·자격증취득

④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서

음악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삶은 가치있고 의미있다.	5	4	3	2	1
2	나는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5	4	3	2	1
3	나는 인생을 즐길 줄 안다.	5	4	3	2	1
4	나의 지나온 삶이 보람된다.	5	4	3	2	1
5	커뮤니티는 나의 삶의 질을 높였다.	5	4	3	2	1
6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성취감 / 소속감을 느낀다.	5	4	3	2	1
7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5	4	3	2	1
8	커뮤니티에서 이루고자 하는 음악목표가 있다.	5	4	3	2	1
9	수상한 일이 있을 때 음악활동을 하며 잊으려고 한다.	5	4	3	2	1

10	커뮤니티 내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5	4	3	2	1
11	커뮤니티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12	커뮤니티 팀원들과 사회적(연습 外) 교류를 한다.	5	4	3	2	1
13	사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깨끗하다.	5	4	3	2	1